

올해 충남 빛낸 나눔천사 한자리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 및 2016년 배분사업 설명회



더불어 사는 충남을 위해 노력한 나눔실천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들의 공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는 농업기술원에서 나눔 문화 확산과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15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 및 2016년 배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은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공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는 모금사업과 배분사업에 걸쳐 우수 시·군, 단체, 개인 등 부문별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날 충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모금사업 유공자는 ▲우수 시·군 부문에는 공주시·예산군·금산군 ▲단체 부문에는 ㈜드림텍(천안시)·태성건설(당진시) ▲개인 부문에는 김혜미 주무관(아산시청)·정혜경 주무관(보령시청)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 충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표창 모금사업 유공자는 ▲우수 시·군 부문에는 계룡시·논산시·당진시·보령시 ▲단체 부문에는 소리여울 통기타 동호회(청양군) ▲개인 부문에는 신경진 광천토굴 전통식품(홍성군)·정지원 현대과워텍(서산시)·이지현 신포우리만두(부여군)·이필환 주무관(서산시청)·이민희 주무관(홍성군청)이 각각 선정됐다.

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표창 배분사업 유공자는 ▲우수 수행기관 부문에는 아산종합사회복지관·아이스타디지털아동센터·해나루보호작업장 ▲우수 수행직원 부문에는 박경선·류미선·김슬기·가민선·김혜민 사회복지사가 선정됐다.

포상식에 이어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2016년 배분사업 설명회'가 열려 배분사업 기준 안내 및 2015년 기획사업 안내, 이지숙 배분분과실행위원(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실무교육이 진행됐다.

유병덕 도 복지보건국장장은 "충남을 나눔으로 빛낸 주신 기부자와 소중한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을 한 자리에 모실 수 있어 영광"이라며 "우리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명병로 기자

강원도, 피라나·레드파쿠 발견

출현한 남미 어종 추가로 발견된 개체 없어



원주지방환경청은 아마존 서식어종인 피라나, 레드파쿠의 잔존 개체 확인 및 제거를 위하여 강원도 횡성소재 저수지에서 물을 모두 빼내어 최종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다.

양수작업 후 조사·확인 결과, 피라미, 밀어, 울쟁이 등만이 확인되었으며 피라나, 레드파쿠 등 추가 개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피라나 3마리, 레드파쿠 1마리가 무단 방류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이들 어류가 번식했을 가능성에 대해 치어, 수정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 결과, 치어와 수정란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피라나와 레드파쿠는 육식성 어류로 알려져 있어 잠마로 인하여 저수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생태계 교란은 물론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어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부, 국립생태원, 횡성군 등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잔존 개체 확인 및 퇴치 작업을 펼쳤다.

양수작업은 지난 6일 오후부터 시작하여 7일까지 밤샘 진행되었으며 저수지 바닥이 보일 정도까지 물을 빼낸 후, 국립생태원, 강원대 등 전문 조사기관이 투입되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양수과정 중 외래어종의 성체, 치어 및 수정란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망을 3중으로 설치하고, 전문 인력들을 배치하여 유출 여부를 최종 모니터링하였다.

기존에 확인된 피라나 3마리, 레드파쿠 1마리 개체들은 모두 국립생태원으로 이송되어 생태계 교란 및 위해성 연구용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들 어종들은 주로 남미에 서식하는 어종으로 국내에는 인위적인 유입 외에 분포할 가능성이 매우 적으므로 누군가 관상어로 키우다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환경부, 강원대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인근 하천 등에 대해서도 서식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상용으로 키우던 외래어류를 무단으로 하천이나 호수 등에 방류할 경우,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절대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환경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에 발견된 피라나 및 레드파쿠를 '위해어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이 위해어종으로 지정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없이 수입·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 연구 등 특수 목적이 아닌 경우 실질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래생물에 대한 자연방사 또는 유기행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해외사례 조사를 추진하여 방사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피시설 갈등관리 개선방식 제안

민관합동 갈등 조정·관리기구 구성 필요

화성 광역화장장 설치, 안양교도소 외왕 이전, 경기 남부 신경기변전소 설치 등 기피시설 설치·이전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경기연구원 기피시설 설치와 입지갈등의 해결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갈등관리의 성공요인과 개선방식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1990~2012년간 117건의 분쟁 중 정부와 주민 간 발생한 분쟁이 88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등, 지역 내 대규모 시설이 위치하거나 변화하는 과정에서 입지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사업 추진 관련 갈등에 관한 정부 규정과 조례는 있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갈등 관련 제도를 보다 현장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아예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기피시설의 입지방식을 개선하여 원천적으로 갈등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

성공적인 입지갈등 해결사례는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추진방식, 갈등행위자 간 협력적 상호작용과정 도입, 대안적(법원 판결 외에 협상, 중재, 조정 도입) 갈등관리 방식 활용,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중립적 갈등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의 공통점이 있다.

시화 MTV 개발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버넌스를 통해, 특수전사령부 이전 이전사업은 지역·주민 편익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경기도내 기피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갈등영향을 분석하여 발생 가능성을 분류하고, 모든 대안적 가능성을 열어놓는 현장 중심의, 이해당사자도 참여하는 '민관합동 갈등조정·관리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장마철 대비 가축매몰지 128곳 안전

환경오염이나 토양유실 등의 문제 발견되지 않아

경기도는 장마철을 앞두고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안성·평택·이천·화성 등 도내 가축매몰지 128곳을 점검한 결과 침출수 유출이나 토양유실 등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칠 매몰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을 대비해 구제역·AI 발생으로 조성된 가축매몰지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집중호우 발생 시 침출수 유출, 매몰지 유실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기도는 우선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올해 조성된 가축 매몰지 89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도는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39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지난해 이후 조성된 매몰지 36개소와 조성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관리기간이 연장된 매몰지 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 지난해 이후 조성된 매몰지 중 농식품부의 점검을 완료했거나 소규모·친환경 매몰지의 경우 점검에서 제외됐다.

도는 침출수 제거 및 유공관 상태, 악취제거를 위한 발효미생물제제 투입 등의 환경관리상태와 배수로 정비 및 성토 유실 상태, 차수막 설치, 경교표지판 유무 등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였으며, 매몰지 사후관리 계획 수립 여부 및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 기동대응 체계 수립여부 등도 함께 확인했다.

점검실시 결과 침출수 유출이나 토양 유실 등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매몰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경기도는 장마철을 앞두고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안성·평택·이천·화성 등 도내 가축매몰지 128곳을 점검한 결과 침출수 유출이나 토양유실 등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칠 매몰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을 대비해 구제역·AI 발생으로 조성된 가축매몰지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집중호우 발생 시 침출수 유출, 매몰지 유실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기도는 우선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올해 조성된 가축 매몰지 89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도는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39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지난해 이후 조성된 매몰지 36개소와 조성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관리기간이 연장된 매몰지 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 지난해 이후 조성된 매몰지 중 농식품부의 점검을 완료했거나 소규모·친환경 매몰지의 경우 점검에서 제외됐다.

도는 침출수 제거 및 유공관 상태, 악취제거를 위한 발효미생물제제 투입 등의 환경관리상태와 배수로 정비 및 성토 유실 상태, 차수막 설치, 경교표지판 유무 등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였으며, 매몰지 사후관리 계획 수립 여부 및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 기동대응 체계 수립여부 등도 함께 확인했다.

점검실시 결과 침출수 유출이나 토양 유실 등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매몰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문제 해법, 현장에서 찾는다

경기도, 석면문제 해결 위한 주민 간담회

경기도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도는 15일 화성시 비봉면 소재 석면 지붕 주택 철거현장에서 주민, 관련 전문가, 철거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간담회'를 열고 도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석면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석면 슬

레이트 지붕이 사용된 주택은 5만 2천여 채로, 현행 국고보조 철거 방식으로는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고보조를 통해 매년 1,500여 채를 철거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무려 30년이나 걸리고, 철거 후 지붕개량비를 자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 대상자들이 지붕철거 신청을 꺼리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현행 석면 지붕 철거 국고 보조금은 1가구 당 최대 336만 원이

며, 지붕 개량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석면 지붕 주택 거주민들이 대부분 영세민, 노인 등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계층들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주민 간담회를 통해 석면문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국가에서 보조하는 석면 지붕 철거비용 이외의 개량비도 추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주택을 소유한 일방계층의 참여 유도 방안과 거주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석면피해 방지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건강한 물을 위한 깨끗한 물

건강한 수도물이 대한민국을 웃게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넘어 건강한 수도물을 만들기 위한 K-water의 새로운 약속 지금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한 물, K-water 프로그램

Smart Water Grid 연구개발
Smart Meter, Online, 스마트 미터, 스마트 계량기, On-line 모니터링 등 스마트 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건강한 물 생산
수돗물 생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민투자사업-건강한 물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otal Care Service-목적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Total Care Service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K-water. All rights reserved. K-water logo